



# 내 또래 재테크 습관 한눈에 비교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서 자산비교서비스 '포레와 나' 운영 예·적금, 펀드 및 노후 준비 투자 등 연령대별 평균치 통계 한달 만에 2560명 이용...펀드 추천·상품가입까지 한번에

"30대 금융소비자들은 매달 38만5735원씩 저축하고 19만8147원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요."

자신과 비슷한 연령과 자산규모를 지닌 금융소비자들의 재테크 습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최근 지역은행이 선보였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9월23일부터 스마트뱅킹에 자산비교서비스 '포레와 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 '스마트서비스'의 하나인 '포레와 나'는 자신의 자산 관리 현황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예·적금, 펀드 및 노후준비 투자 등의 자산운용 비중을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할 수 있다. 스마트뱅킹에만 접속(로그인)하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없다.

지난 9월 말부터 이달까지 2560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포레와 나' 첫 화면에서는 자신의 금융자산 현황을 표와 그래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에 등록된 금융자산 총액과 입출금은 얼마나 했는지 ▲예적금·외화 ▲펀드·신탁·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방카사우쓰(보험상품) ▲퇴직연금 등 부문별 비중을 원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 서비스는 10대 이하부터 20대~70대 이상 연령대를 나눠 자신의 또래가 평균적으로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적금 저축액과 펀드 투자액, 퇴직연금 가입 비중 등을 연령대별로 평균치를 낸 것이다.

이 같은 분류는 자산규모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1000만원 ▲1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3억원 ▲3억~10억원 ▲10억원 이상 등 금액대별로 나뉘었다.

이 서비스는 비교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상품 가입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저축과 투자, 노후준비 관련 상품 설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포레와 나' 서비스 외에 광주은행은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만 적용해오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스마트뱅킹에도 적용한 'K.마이봇'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장상황과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상품을 추천하고, 상품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이다.

정장암 광주은행 부행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고객님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일까지 경제 연구논문 공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오는 20일까지 지역 경제에 관한 연구논문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연구주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광주전남 지역 지역내총생산 예측'이다. 한은은 지역의 경제구조 및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논문 선정되면 연구 기간인 6개월 동안 2000만원 인팍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한은 광주전남본부 직원과 공동연구를 펼친다.

선정된 외부연구자에게는 주저자(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주어진다.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방향 및 필요성, 지역사회의 수요, 정책적 시사점 등을 포함하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분석방법의 적절성 등도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SNS 광은스타' 공모전 시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소셜미디어(SNS) 홍보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약한 우수 사원을 시상했다. <광주은행 제공>

## 소프트웨어 융합오픈랩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이끈다

### 2025년까지 인프라 확대도

광주·전남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융합오픈랩'이 지역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사업단에 따르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전KDN,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돼 올 연말 마무리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에너지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한전KDN이 에너지 통합관제 운영시스템 구축을, 한국전력연구원이 e-lot(에너지 사물인터넷) 표준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e-Io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 적합성 시험센터를 운영, 기업들이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기술교육과 인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SW융합 오픈랩을 통해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데이터셋 제공과 데이터 연동 테스트, 표준적합성 시험 및 컨설팅 등 32건의 분야에 활용하는 등 괄목할만한 운영 실적도 냈다.

내년부터 추진될 SW융합클러스터 2.0 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할 방침이다.

박복길 단장은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SW융합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한전KDN '사회적책임 대상' 블록체인 채용시스템 도입 등 우수

전통시장 상생과 공정 채용에 앞장선 한전KDN이 기획재정부 장관상인 '사회적책임 대상(SR)'을 받았다.

한전KDN은 지난 4일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이 주관한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20'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은 경영 책임자(CEO)가 주관하는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 각 조직 산하에 전담 부서를 지정해 운영했다.

올해 들어 전통시장에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전력설비를 보장하고, 공기업 최초 블록체인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소서비스용 미세먼지 저감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감시시스템을 개발하며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